

‘명품 케이(K)-특허심사’ 세계에 알린다!

- 특허청-WIPO, 27개국 대상 온라인 특허 심사실무 교육과정 실시 -
- 특허심사 절차부터 방법론까지, 한국의 우수 특허심사 노하우 제공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와 공동으로 4. 14.(월)~18.(금)까지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향상을 위해 27개국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*들을 대상으로 ‘2025 한-WIPO 특허 심사실무 교육과정’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.

* 특허 심사관, 특허 정책 관련자, R&D 특허 관련 분야 종사자 등

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국가는 인도, 인도네시아, 아랍에미리트 등 우리나라와 경제적 협력 관계가 긴밀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27개국이다. 교육은 참가자들의 지식재산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심사 방법론부터 인공지능(AI)과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한국의 우수한 특허심사 기준 및 심사실무를 소개한다. 특히, 혁신기술의 창출과 보호를 촉진하는 ‘명품 K-특허심사’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한국과 참여국 간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, 우리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번 교육과정은 ▲한국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현황 및 정책 소개 ▲특허심사 절차 및 방법론 ▲인공지능(AI) 발명 심사기준 ▲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정책 등 특허심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. 특히 지난 5년간 교육 연수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주제를 엄선하는 등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하였다.

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“이번 교육이 참여국 특허심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예방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통해 케이(K)-특허심사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지식재산 국제교육을 수행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과	책임자	과 장	김동국 (042-601-4350)
		담당자	주무관	윤예진 (042-601-4329)